



베트남

최대 유업체 금년 상반기 수출 24%증가

베트남 최대 유업체인 비나밀크사의 금년 상반기 제품 수출액이 년 24%이상 성장한 2천470만불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베트남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합주식회사형태인 비나밀크사는 그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호주등에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이러한 매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가는 2년만에 90%이상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량 정비를 통한 매출증대가 기대되어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회사 소유지분을 50%이하로 낮춰 본격적인 주식회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CONOMY〉



미국

코네티컷주 낙농가 보조금 지급 결정

미국 코네티컷주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낮은 유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내 2천200여명의 낙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젖소 목장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낙농가들은 직접보조금은 물론 저리융자, 대출보증 및 에너지 지원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주내 소비되는 우유의 50~60%를 생산하는 낙농가들의 우유생산비는 1갤론당 1.60달러(420원/리터)이나 연방정부 고정유대는 1.50달러로 농가들이 생산하는 우유 1갤론당 50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lstein world〉



일본

낙농 생산이력추적관리 확립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농협그룹은 낙농분야에서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농약사용제한제도)에 맞춰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동(同)그룹은 독자적으로 생유(生乳)를 착유하여 농약 및 항생물질의 잔류검사를 하는 외에 유업메이커 등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농장단계에서의 유온(乳溫) 등을 밝히는 생산이력추적관리의 확립을 목표로 금년 가을에는 도입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유는 집유(集乳)단계에서 여러 농장의 생유가 혼합된다.

이 때문에 농약 등의 잔류(残留)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의 영향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커질 우려가 있다. 동(同)제도의 도입을 바탕으로 전국 최대의 생유생산량을 자랑하는 홋카이도의 우수성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이다. 농협그룹은 동(同)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각 지구에 낙농관련기관·단체에 의한 지구추진조직을 설치하고, 낙농가에게는 농약사용기준의 준수와 함께 급여사료 등의 기록과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농협그룹은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도반을 편성, 낙농가에 농약 등의 적절한 사용 및 기록·보관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이상 농약 등의 사용실태 조사를 홋카이도유질 개선협의회에 위탁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험평가의 수정도 검토한다. 농약 및 항생물질의 잔류검사에서는 일본 낙농유업협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사를 하는 외에도 농협그룹의 독자적인 추출검사도 할 계획이며, 유업메이커 등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농업신문〉